<연구논문>

한국인구학 제25권 제2호(2002) : 41~68 한국인구학회

여성 청년층 집단의 취업이행 형태 연구

김태홍* · 김종숙**

본 연구에서 여성 청년층 집단의 첫 일자리 진입과, 첫 일자리로 고용조건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집단이 이후 이러한 종사상 지위에서 언제 어떠한 지위로 탈출하는가를 동태적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는 한국여성개발원이 2001년에 수집한 "제4차 여성의 취업실태조사"의 취업력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여성 청년층 중 취업으로 이행한 집단은 최종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데 약 1.54년의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위기 직후 뿐 아니라 이후의 회복기에도 여성 청년층 집단의 취업이행이 매우 어려워 경제상황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고졸 여성 중 인문계졸업자의 취업이행이 어려우며 대졸자 역시 취업이행이 원만하지 않아 졸업장 효과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오히려 자격증이나 취업에 대한 태도보다는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으로 이행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일자리로 고용조건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집단 중 50%만이 이러한 지위에서 탈출하였다. 학력과 세대효과가 뚜렷하여 대졸여성일수록 젊은 세대일수록 비정규직 상태에서 탈출할 확률이 높았다. 정규직으로의 탈출에는 대학의 전공계열, 비정규직 취업과 학업의 병행 여부가 영향을 미치며, 미취업상태로의 탈출에는 처음 취업한 업종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단어: 여성, 청년층, 취업이행, 첫일자리, 비정규직

* 한국여성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Ⅰ. 서론

청년층 집단의 실업률은 경기변동 및 회복과 그 흐름을 같이함과 동시에 보다 구조적인 문제를 내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안주엽, 홍서연 2002). 예컨대 경제위기 이전인 1995년 전문대졸 남성 20-24세 집단의 실업률은 14.0%, 25-29세 집단은 4.6%, 전문대졸 여성의 경우 20-24세 집단의 실업률은 7.7%, 25-29세 집단은 2.5%를 나타내었고 1995년 대졸자 남성 25-29세 집단의 실업률은 4.7%, 여성 20-24세 집단은 7.9%, 25-29세 집단은 2.2%를 보여 전반적으로 전체 실업률을 상회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청년층 실업률의 특징인 과잉반응(overshooting)을 반영하듯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 전문대졸 남성 20-24세 집단의 실업률은 24.1%, 대졸 여성 20-24세 집단의 실업률은 12.1%까지 치솟았다. 이후 남성 20-24세 집단의 실업률은 2001년 11.2%, 25-29세의 실업률은 7.1%, 여성 20-24세 실업률은 7.4%로 회복을 보이고 있으나 주요 경제활동인구 집단 중 높은 수준이다.

청년층 집단 중 특히 여성 청년층 집단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성 청년층 집단은 청년층 집단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특성과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가지는 특수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집단이다. 일반적으로 청년층 집단의 고실업률의 심각성은 이들 집단은 타 집단과는 달리 일자리탐색 노력의 강도나 범위에 있어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항상 일자리를 찾고 있는 집단이라는 점에 있으며 이들의 첫 일자리는 향후 이들의 직업경로, 경력개발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병희 2002). 또한 청년층 집단의 유휴화의 원인이 기업의 경력직 선호와 학교와 노동시장의 불일치라는 점에서 여성 청년층 집단은 출산 및 양육의 과정으로 장기적으로 경력축적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더욱 큰 집단이다.

더불어 여성 청년층 집단의 경제활동을 나타내는 지표는 현상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이 집단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 예컨대 현재의 실업률 통계에서는 여성의 비경제활동 부분을 고려하지 않음에 따라 여성청년층 집단의 실업률은 남성과 비교할 때 대체로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지 못하다.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의하면 전문대졸 여성 청년층 집단의 실업률은 남성에 비하여 낮으며 대졸여성 24-29세 연령집단도 동일 연령대의 남성 집단에 비하여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통계수치는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즉 노동시장에서 소외를 경험하며 구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이른바 실망실업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로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2001년 여성청년층 집단의 경우 대졸여성의 취업률은 41.0%에 그치고 있어 높은 유휴화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중 68.5% 만이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양적 및 질적 측면에서 여성 청년층 집단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원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졸업이후 첫 일자리로의 이행은 개인의 낙인효과(stigma), 즉 노동시장에서 부정적인 신호(negative signal)를 주게 되는 효과를 경험하므로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이 길어질수록 이후의 취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 낙인효과는 여성의 경우 더욱 크게 나타난다 (Van den Berg and Van Ours 1999). 첫 일자리 진입과 더불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여성취업자의 종사상 지위에 관련된 부분이다. 경제위기를 거치며 여성의 경우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정규직으로 첫 일자리에 진입하는 경향이 많아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규모는 증가하는데 반하여 질적 수준의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김태홍 2001).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최종학교 졸업이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여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학교-노동시장 이행형태를 연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양적인 측면에서 여성 청년층 집단의 첫 일자리 진입과, 질적인 측면에서 첫 일자리로 비정규직 등 고용조건이 불안정한 직업을 가진 집단의 향후 이행을 점검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 즉 미취업기간(nonemployment duration) 영향을 미치는 제 요소들과 그 영향을 점검하여 여성청년층 집단의 첫 일자리로의 취업이행 형태를 보이고자 하며 첫 일자리로 고용조건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을 선택한 청년층 집단이 고용조건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규직으로 이행하는가, 비정규직에 머물러 있는가, 혹은 비경제활동상태로 편입되는가를 주로 분석할 것이다.

Ⅱ. 본론

1. 분석모형

일반적으로 미취업상태에서 취업으로 이행하는 기간, 비정규 취업에서 다른 경제활동상태로 이행하는 기간에 대한 분석은 해자드모형(hazard model)으로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해자드모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이다. 즉, 일반적으로 J개의 탈출경로가 존재하고 미완료상태를 고려할 때, 실직에서 취업 혹은 비정규 취업에서 다른 경제활동상태로의 탈출에 소요된 경과 기간은 식 (3-1)과 같이 정의된다. 식 (3-1)에서 T는 관찰된 경과기간, T_j^c는 미 관찰되는 완료된 탈출경로별 경과기간 (uncensored destination-specific durations), c는 미 완료상태의 경과기간 (censoring time)이다.

$$T = Min(T_1^c, T_2^c, ..., T_j^c, c) \qquad (1)$$

탈출경로 j를 통해 한 상태에서 탈출하였음을 나타내는 탈출경로 지표함수(destination- specific indicator function)는 식 (2)와 같이 정의된다. Kalbfleisch와 Prentice (1980)에 따르면 일정시간 t 직전까지 한 상태에 지속적으로 머문 개인이 그 상태에서 탈출경로 j를 통해 탈출할 조건부 확률인 탈출경로별 위험함수(hazard function)는 식 (3)과 같이 정의된다. 식 (3)에서 Prob[z]는 사건(event) z가 일어날 확률을 의미한다. 이 위험함수의 적분함수인 탈출경로별 누적위험함수(integrated hazards)는 식 (4)로 나타낼 수 있다.

식 (4)에서 $Int_{[o,J]}h(u) = \int h(u)\,du$ 로 함수$f(u)$의 0에서 T 사이의 적분을 말한다. 따라서 조건부 탈출경로별 잔존함수(survival function)는 식 (5)로 표현되며, 일정시점 t에서의 탈출확률함수(destination-specific failure time sub-density function)는 식 (6)으로 정의된다.

d_j = 1 (탈출경로 j를 통해 탈출) (2)

0 (그렇지 않은 경우)

$$h_j(t) = \lim_{\Delta t \to 0} Prob\,[t \le T < t + \Delta t, J = j | T_j \ge t, j = 1, 2, ..., J\,] / \Delta t \quad (3)$$

$$H_j(t) = Int_{[o, J]} h_j(u) \quad (4)$$

$$S_j(t) = \exp\,[\,-H_j(t)\,] \quad (5)$$

$$f_j(t) = h_j(t) S_j(t) \quad (6)$$

분석을 위해서는 식 (3)의 해자드함수를 설정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해자드함수는 식 (7)과 같다. 식 (7)의 첫 번째 항은 탈출경로별 기준선 위험을 나타내는 것으로 시간의존성을 나타낸다. 두 번째 항은 X는 근로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벡터(vector)이며 β는 설명변수 X의 효과를 나타내는 계수 벡터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설정을 분석목적에 따라 두 가지로 설정하였다. 먼저 여성 청년층 집단의 첫 일자리 진입에 관한 분석에는 탈출구가 하나(j=1)인 비례적 해자드모형으로 식 (8)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비례적 해자드모형은 시간의존(time dependent covariates)과 상관없이 비례적으로 독립변수의 영향이 분석되므로, 시간의존에 대한 별 다른 가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이행에 따른 독립변수의 영향을 용이하게 해석할 수 있다.

$$h_j(t) = h_{j0}(t) \exp\,(-X_{ij}'\,\beta_j) \quad (7)$$

$$\frac{\ln h(t,x)}{\ln h(t,0)} = -\beta' x \quad (8)$$

두 번째 분석인 비정규 취업으로 처음 취업한 여성청년층의 비정규취업 탈출을 분석에서는 먼저 비정규 취업상태의 탈출확률이 시간 의존적인 상황에서, 다탈출경로에서 각 경로별 탈출확률이 시간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변화되는 지를 검증(parametric test)하였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Cox and Oakes(1984)의 방식에 따라 식 (9)에서 식 (10)과 같이 설정, 추정하여 비례위험가설(proportional hazards hypothesis)을 검증하였다. 본 논문에서 식 (10)을 추정하여비례위험가설을 검증한 결과에 의하면, 시간에 대한 추정계수가 '0', 즉 j 탈출경로별 $\beta_j = \beta$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여성청년층의 비정규상태 탈출을 분석에서도 식 (12)를 다탈출구인 비례적 해자드모형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h_j(t) = w_j h(t) \tag{9}$$

$$\log h_j(t) = \alpha_0(t) + \alpha_j + \beta_j t \qquad j=1,2,\ldots,J \tag{10}$$

$$h_j(t) = h_{j0}(t) \exp(-X_{ij}'\beta_j) \tag{11}$$

$$\ln h_j(t) = \alpha_{0j} + \beta_1 X_{1j} + \beta_2 X_{2j} + \ldots\ldots \beta_k X_{kj} \tag{12}$$

2. 여성청년층의 첫 일자리 이행 현황 및 결정요인

가. 첫 일자리 취업이행 현황

본 논문은 한국여성개발원이 2001년에 전국 4,646가구를 조사한 「제4차 여성취업실태조사」를 이용한다 (2002). 본 논문의 첫 일자리로의 이행분석을 위하여 조사된 일반여성 4,136 명 중 조사시점 현재 연령이 15-29세에 걸쳐있는 집단을 표본으로 추출하였다[1)]

최종적으로 639명이 연구에 이용되었다. 본 분석의 관심은 최종학교 졸업 후 첫 직업을 갖는데 걸린 시간이다. 여성의 취업실태조사의 취업력 부분에서 측정한 취업이행기간은 1년 단위로 직업의 유무를 조사하였으므로 그 기간의 간격이 통상적으로 조사하는 취업이행 기간에 비하여 크다. 일

1) 본 연구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조사한 제4차 "여성의 취업실태 조사" 자료를 이용한다. "여성의 취업실태 조사"자료는 1985년 제1차 조사를 시작으로 2001년 제4차 조사에 이르기 까지 5년을 주기로 생산되었으며 여성의 취업 뿐 아니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이외의 변수들을 폭넓게 담고 있다. 노동과 임금에 대한 정보, 가족, 혼인, 여성의 취업에 관한 사회적 관습과 배우자의 견해, 보육 및 사교육비, 가구의 경제상황 등 여성의 취업과 관련있는 유용한 변수가 이들이다. 제4차 "여성의 취업실태 조사"는 조사대상 125개 지역에서 4,646 가구, 4,758명의 여성이 조사되었다. 이중 15-65세의 일반인 4,136명, 학생 622명이고 기혼여성은 3,574명, 미혼여성은 1,184명 이다.

반적으로 실업률은 계절적 변동이 다소 존재할 만큼 1년 내에도 편차가 존재하며 최종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나온 청년층 집단의 경우 구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집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1년 간격의 조사는 그 결과에 있어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추출된 표본이 15세부터 29세 기간에 분포하여 있기 때문에 개인이 취업이행에 걸리는 기간은 년 단위로 할 때 14년에서 단절을 갖는다.

이 표본들은 기간별로 분포되어 있다. 최종학교를 졸업한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1986-1990년 졸업한 집단은 전체의 2.34%, 1991-1995년 졸업한 집단은 41.88%, 외환위기 직전인 1996-1997년 졸업한 집단은 22.50%, 외환위기 직후인 1998-1999년 졸업한 집단은 20.47%, 2000년 이후 12.66%를 나타내고 있다. 표본의 교육수준별 분포를 살펴보면 급격한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현재 청년층 집단의 중졸이하 비율은 2.03%에 그치고 있으며 고졸이 54.86%, 초급대졸이 17.86%, 대졸이 25.13%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표본 중 첫 직업을 가진 여성의 비율은 전체의 86.2%인 551명이고 직업을 갖지 않은 여성은 13.8%인 88명이다.

각 교육수준에서 취업자의 비중은 고졸미만의 경우 61.54%만이 첫 일자리로 취업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고졸 중 87.14%, 초급대졸 중 87.72%, 대졸 중 85.09%로 고졸이상의 학력계층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 교육수준별 첫 일자리로의 이행분포

(단위: %)

	고졸미만	고졸	초급대졸	대졸
각 교육계층별 첫 일자리 취업률	61.54	87.14	87.72	85.09

이어서 이행기간을 중심으로 그 분포를 알아보았다. 최종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로 1년 미만의 기간에 이행을 한 집단은 전체의 16.85%, 1년의

기간이 걸린 집단은 35.43%, 2년이 걸린 집단은 19.69%로 2년 내에 첫 일자리로 이행한 집단이 약 72%에 이른다. 평균 미취업기간은 3.42년으로 나타났으며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사실상 취업으로의 이행이 없어 비경제활동상태에 남아있는 것으로 볼 때 실제로 취업으로 이행한 표본의 평균값보다 크다. 취업으로 이행한 551명의 취업이행기간을 대상으로 평균값을 구하면 1.54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술하였듯이 분석기간의 단위가 1년이므로 1.54년이라는 수치는 실제로 1년과 2년 사이에 많은 취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년층의 경우 졸업이전 혹은 졸업과 동시에 구직을 하는 집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기간의 경과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이러한 취업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미취업상태의 여성 청년층 집단이 취업상태로 탈출하는 확률을 Kaplan-Meier의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2>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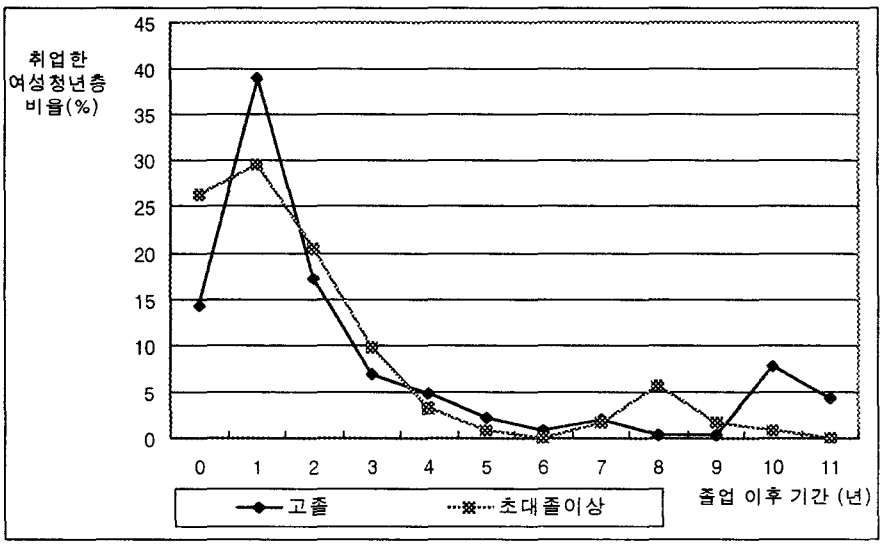
분석은 앞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미취업으로부터 취업한 연령까지, 그리고 탈출을 하지 못한 집단은 29세가 되는 시점까지 분석하였다. 첫 일자리로의 탈출은 1년과 2년의 기간에 집중적으로 미취업탈출이 이루어지며 최종학교 졸업 후 7년에서 8년이 경과하면 취업으로 탈출이 크게 감소하여 10년이 경과하면 첫 일자리의 취업으로 탈출할 확률이 0이 된다.

<표 2> 여성청년층 집단의 미취업탈출

미취업기간	여성청년층수	기간내 탈출자	잘려진 관측치	탈출확률	생존율
0	639	107	0	0.17	0.83
1	532	225	0	0.42	0.58
2	307	124	1	0.40	0.60
3	182	48	1	0.26	0.74
4	133	24	1	0.83	0.17
5	106	25	2	0.24	0.76
6	92	9	5	0.10	0.90
7	75	5	12	0.07	0.93
8	61	7	7	0.11	0.89
9	52	1	4	0.02	0.98
10	49	0	3	0.00	1.00

이러한 취업이행에 걸리는 기간은 교육수준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급대졸과 대졸의 경우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고졸과 초급대졸 이상의 취업이행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졸업 후 1년 이내에 취업하는 비율은 초급대졸 이상의 여성이 25%를 상회하는 반면 고졸의 경우 15%미만으로 큰 차이가 있다.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고졸의 취업이행이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그 이후 이행하는 비율이 급락한다. 이후 2-3년까지는 초급대졸 이상이 고졸자에 비하여 다소 취업이행확률이 높다. 기간이 경과하여 8년 11년에 각각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취업으로 탈출하지 못한 집단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림 1] 교육수준별 여성청년층의 취업이행기간 분포



나. 첫 일자리로의 취업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음으로 첫 일자리로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종속변수는 최종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 취업에 걸린 기간을 사용하였으며 측정 단위는 1년이다. 취업으로 탈출하지 못한 집단은 우측절단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설명변수로는 대졸자의 취업이행이 타 교육수준 집단에 비하여 원활한지를 보기 위하여 대졸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사용하였고, 대학졸업자의 경우는

전공의 취업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하여 인문, 사회과학, 상경계열을 대표하는 더미변수를, 자연공학의학계열을 대표하는 더미변수를 각각 이용하였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인문계졸업을 나타내는 더미를 이용하여 인문계 졸업자의 취업이행이 비인문계에 비하여 원활한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표 3> 미취업기간 탈출함수 추정에 사용된 변수

변수명		정의 및 측정단위
<종속변수>		
미취업기간	duration	-학교 졸업후 첫 취업상태로 전환하기까지의 기간
<독립변수>		
교육수준	edu	-4년제 대졸이면 edu=1,그렇지 않으면 0.
대학전공 더미	humanity scitech	-인문, 사회, 경상계열이면 humanity=1, 그렇지 않으면 =0. -공학, 이학, 의학계열이면 scitech=1, 그렇지 않으면 =0.
고교계열 더미	high	-인문계이면 high=1, 그렇지 않으면 =0.
가정환경 더미	dadedu	-15세때 부친의 학력이 고졸이상이면 dadedu=1, 그렇지 않으면 =0.
기간더미1	period1	-최종학교졸업이 1998-1999, 즉 외환위기 직후이면 period1=1, 그렇지 않으면 =0.
기간더미2	period2	-최종학교졸업이 2000년 이후면 period2=1, 그렇지 않으면 =0.
의식태도더미	attitude	-남성과 동일하게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정도가 5점 중 4점이상이면 attitude=1, 그렇지 않으면 0.
전공만족도더미	satisf	-전공에 대한 만족수준이 5점 중 4점 이상이면 satisf=1, 그렇지 않으면 0.
자격증 더미	certifc	-최종학교 졸업이전 자격증 취득하였으면 certifc=1, 그렇지 않으면=0.
훈련더미	exercise	-학교졸업 이전 직업훈련경험 있으면 exercise=1, 그렇지 않으면 0.

가정상황이 취업이행에 어떠한 영향을 나타내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대리변수로 15세 때 부친의 학력수준더미를 이용하였다. 경제충격과 회복을 나타내는 중요한 변수로 기간변수를 고려하였다. 1996년에서 최근은 한국경제가 외환위기라는 경제의 급격한 충격을 경험하였고 실업률에 있어서 커다란 충격(shock)을 경험하였던 기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환위

기 직후와 회복기의 두 기간을 고려하여 경제위기로 인한 충격이 여성 청년층 집단의 취업이행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취업과 관련한 남녀평등 의식을 나타내는 변수, 대학의 전공만족도를 나타내는 더미, 재학 중 자격증 취득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를 포함시켰다.

청년층 여성의 미취업상태 탈출 결정요인에 대한 추정결과는 <표 4>과 같다. 추정결과에 의하면 인문계 고교더미, 전공만족도, 외환위기 직후와 그 이후 회복기를 나타내는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자의 경우 인문계 고교 졸업자의 취업이행이 그 외 실업계 및 공업계 고교졸업에 비하여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충격과 회복을 나타내는 기간더미에서 나타나듯이 외환위기 직후의 청년층 미취업기간은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이후 회복기에 들어서도 청년층의 미취업기간은 역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미취업기간의 폭은 다소 줄어들었으나 크게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미취업기간 탈출 결정요인 분석

	추정계수	표준오차	Chi-Square	Hazard Ratio
edu	0.5654	0.4059	1.9399	1.760
humanity	-0.0748	0.1870	0.1602	0.928
scitech	0.1320	0.1886	0.4900	1.141
high	-0.2658	0.1235	4.6356**	0.767
dadedu	-0.0581	0.0887	0.4293	0.944
period1	-0.4474	0.1181	14.3519***	0.639
period2	-0.3445	0.1497	5.2918**	0.709
attitude	0.1322	0.1358	0.9474	1.141
satisf	0.1833	0.1084	2.8579*	1.201
certifc	0.1000	0.0974	1.0563	1.105
exercise	0.1562	0.1936	0.6511	1.169
-2 LOG L	6538.821			

주: ***, **, *는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학과의 전공만족도가 높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취업으로 이행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데 반하여 기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자격증의 보유나 취업에 관한 태도, 직업훈련의 경험 등은 미취업기간을 단축하는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대졸자의 취업이행 비율은 다른 교육집단에 비하여 높기는 하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대학 전공 더미도 자연, 공학, 의학계열의 경우 취업이행에 정(+)의 효과, 인문, 사회, 상경계열의 경우 부(-)의 효과를 나타내기는 하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어서 교육수준이나 대졸자의 전공계열도 취업이행기간을 단축하는데 크게 기여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취업이행이 어려움을 암시하고 있다.

3. 비정규취업 청년층 여성의 노동이행형태 분석

가. 비정규취업 탈출현황

비정규직 취업탈출 분석을 위하여 첫 일자리 진입 분석에 사용되었던 한국여성개발원이 2001년에 조사한 「제4차 취업실태조사」의 취업력(work history) 자료를 활용하였다. 취업력 자료는 15-64세 여성을 대상으로 회상법(retrospective method)를 사용하여 15세부터 현재 연령까지의 취업력, 교육 및 혼인 현황 등을 조사한 자료의 일부이다. 본 분석에서는 최종학교를 졸업한 이후 처음 취업한 일자리의 종사상지위가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고 근로조건이 열악한 일시 및 일용고, 무급가족종사자인 여성집단이 다른 경제상태로 탈출하는 현황을 분석하였다.[2] 분석은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이후부터 만 35세가 되는 시점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대상을 통상적으로 청년층이라고 하는 30세 미만보다 긴 35세로 한 것은, 고등교육기관을

2) 본 논문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저위에 있는 임시·일용고나 무급가족종사자로 취업한 집단을 '비정규근로자'보다 범주가 넓은 '비정규 취업자라고 정의하여 사용하였고, 이러한 취업상태와 대비되는 용어로 상용직이나 고용주로 취업한 집단을 '정규직 취업자'라고 정의하였다.

이수함에 따라 처음 일자리를 얻은 연령이 상당히 늦어진 경우에도 비정규직 탈출현황을 관찰하기 위함이었다. 분석에 사용된 표본 수는 최종학교를 졸업하고 만 30세 이전에 취업한 여성 2,800명 중에서 임시직 및 일고, 무급가족종사자로 취업한 602명이었다. 「제4차 여성취업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30세 이전에 처음 취업한 여성 중에서 73.4%는 상용근로자, 21.5%는 임시고 및 일용고, 무급가족종사자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 취업자가 정규직취업이나 비경제활동상태로 탈출하는 확률을 Kaplan-Meier의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4>과 같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비정규상태로 취업한 연령부터 만 34세가 되는 시점까지 분석하였으며 15세 때에 비정규상태로 취업한 여성근로자의 경우 최대 18년까지 관찰이 가능하다. 비정규직에서의 탈출은 크게 정규직 (정규직/고용주/자영업자 포함)과 미취업상태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나, 먼저 정규직과 미취업상태를 포괄해서 비정규상태 탈출을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을 최대 만 35세까지를 기준으로 하면 평균 비정규상태 취업지속기간은 11.388 (표준오차 0.2735)으로, 여성 비정규취업자는 한번 비정규상태로 취업되면 평균 11년 이상 비정규상태로 계속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 비정규상태 취업기간별 탈출확률을 보면, 여성 비정규 취업자의 25% (탈출한 여성 비정규 취업자의 50%)가 4년 정도 비정규상태으로 일하다가, 다른 종사상지위로 탈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다른 종사상지위로의 탈출을 정규직과 미취업상태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비정규상태로 취업하는 여성근로자 중에서 정규직으로 탈출 현황을 보면, 비정규 취업기간이 18년 경과한 이후에 9.2%만 정규직으로 탈출하였다.[4]

---

3) 비정규 취업지속기간이 18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censoring data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평균탈출기간이 실제보다 낮게 추정될 가능성이 크다.

4)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중에서 미취업상태로 탈출한 여성집단은 잘려진 자료 (censoringdata)로 처리됨.

<표 5> 비정규직 취업의 탈출확률 및 생존률

비정규직 취업기간	비정규직 근로자수	기간내 탈출자 (정규직/비경활)		잘려진 관측치	비정규직 탈출확률	생존율
1	602	53	(7 / 46)	5	0.0880	0.9120
2	544	42	(7 / 35)	6	0.0772	0.8416
3	496	38	(7 / 31)	6	0.0766	0.7771
4	452	29	(5 / 24)	2	0.0642	0.7272
5	421	20	(3 / 17)	2	0.0475	0.6927
6	399	14	(1 / 13)	2	0.0351	0.6684
7	383	14	(1 / 13)	4	0.0366	0.6439
8	365	17	(2 / 15)	2	0.0466	0.6139
9	346	14	(1 / 13)	4	0.0405	0.5891
10	328	8	(3 / 5)	3	0.0244	0.5747
11	317	2	(0 / 2)	5	0.0063	0.5711
12	310	3	(0 / 3)	1	0.0097	0.5656
13	306	3	(0 / 3)	1	0.0098	0.5600
14	302	2	(1 / 1)	3	0.0066	0.5563
15	297	4	(3 / 1)	4	0.0135	0.5488
16	289	2	(0 / 2)	4	0.0069	0.5450
17	283	1	(1 / 0)	7	0.0035	0.5431
18	275	0	(0 / 0)	275	0.0000	0.54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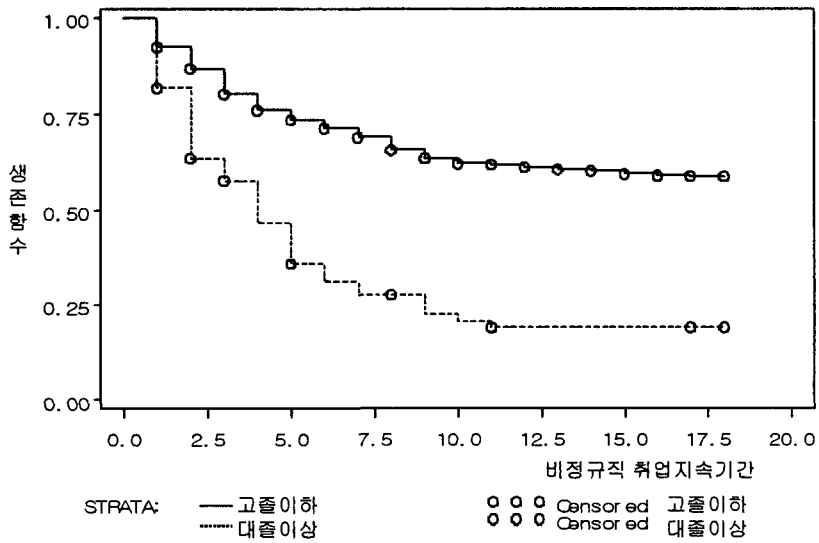
그리고 비정규 취업여성 중에서 약 5%(비정규 취업 여성 중에서 정규직으로 취업한 여성의 약 50%)는 4년 이내에 정규직으로 탈출하였다. 비정규 여성취업자는 정규직보다 미취업상태로 탈출하는 여성비율이 훨씬 높았다. 즉, 비정규 취업기간이 18년 정도 경과하는 동안에 비정규 여성취업자의 39.9%가 미취업상태로 탈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 취업여성의 약 25%가 5년 이내에 미취업상태로 탈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학교를 졸업하고 비정규로 취업한 청년층 여성들은 5년 이내에 5%는 정규직, 25%는 미취업상태로 탈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정규 여성취업자의 50% 정도는 만 34세가 될 때까지도 비정규 취업상태로 남아 있었다.

또한 학력별로 구분해서 비정규 취업지속과 관련된 비정규 취업의 잔존함수를 살펴보면 [그림 2]과 같다. 즉, 초직을 비정규로 취업한 대졸이상

고학력여성과 고졸이하 저학력여성을 보면 만 34세까지 비정규로 계속 취업한 고졸여성은 58.8%가 비정규직상태로 남아 있는 반면에, 대졸 여성은 19.1%만이 비정규직 상태로 잔존하였다. 또한 비정규로 취업한 대졸여성의 경우 2년 이내에 약 25%가 다른 종사상지위로 탈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정규 취업기간이 4년 정도 경과하면 50%가 정규직 혹은 미취업상태로 탈출하며, 9년이 경과하년 75%가 탈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여성의 탈출경로를 보면 만 35세 이전에 비정규직을 탈출한 전체 대졸여성의 24.1%는 정규직, 나머지 75.9%는 미취업상태로 탈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력 여성 중에서 정규직으로 탈출한 여성은 대부분(76.9%)이 4년 이내에 탈출하였다. 미취업상태로 탈출한 고학력 여성도 탈출여성의 48.3%가 3년 이내, 그리고 4년 이내에 55.1%가 탈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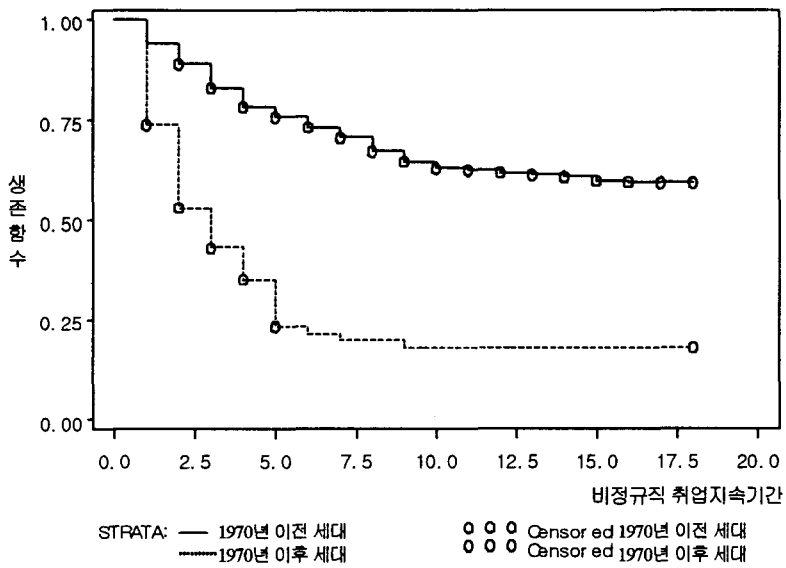
이에 비해 고졸여성은 비정규 취업기간이 5년 경과하면 25% 정도가 정규직 혹은 비취업상태로 탈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여성 중에서 정규직으로 탈출한 여성의 경우 대략 8년이 경과한 이후에 탈출여성의 72.4%가 정규직으로 탈출하였다. 미취업상태로 탈출한 고졸여성의 경우 탈출여성의 48.6%는 3년 이내, 59.6%는 4년 이내에 탈출하였다.

[그림 2] 학력별 비정규직 취업의 잔존함수



이러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동일하게 초직(初職)을 비정규직으로 취업하였더라고 고졸여성은 대졸여성보다 비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있는 기간이 상당히 긴 것으로 나타났다.[5] 뿐만 아니라 고졸여성은 대졸여성보다 정규직으로 탈출하는 비율뿐만 아니라 미취업상태로 탈출하는 비율도 상당히 낮았다. 또한 동일하게 정규직으로 탈출하더라고 대졸여성은 고졸여성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정규직으로 탈출하였고, 미취업상태로 탈출하는 경우에는 대졸여성의 탈출기간이 고졸여성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6]

[그림 3] 세대별 비정규직 취업의 잔존함수



또한 비정규직 취업의 잔존함수를 출생세대 즉, 1970년 이전(30세 이상

5) 학력별 생존함수에 대한 동질성 검증에 의하면 학력별로 탈출형태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og-rank test, Wilcoxon test, -2Log(LR) test에서 모두 99% 유의수준에서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6)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자료 중에서 단절된 자료(censoring data)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정규직 및 미취업상태로의 탈출기간의 평균값은 과소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탈출하는데 소요되는 평균기간을 비교분석하지 않았다.

인) 세대와 그 이후에 출생(30세 미만)한 세대를 구분해서 보면 [그림 3]과 같다. 먼저 30세 미만 여성 중에서 최종학교 졸업이후에 비정규직으로 처음 취업한 여성은 9년 이내에 82%가 정규직 혹은 미취업상태로 탈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좀 더 자세히 보면 [그림 3]에서와 같이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1년 이내에 해당 집단의 25%가 비정규직 상태에서 탈출하고, 3년 이내에 50% 그리고 5년 이내에 75%가 탈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30세 이상 세대의 경우 학교를 졸업한 이후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여성의 59.4%가 만 35세 때까지 계속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 여성의 경우 6년 이내에 25% 정도 다른 종사상지위로 탈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통계는 과거 세대 여성의 경우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여성들은 비정규직 상태에서 상당히 오래 동안 경제활동을 한 반면에, 최근 세대의 여성들은 비정규직으로 처음 취업한 이후에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다른 경제활동상태로 전환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세대별로 구분해서 보면 30세 미만 여성 집단의 경우 비정규직으로 처음 취업한 여성 중에서 30세 이전에 정규직으로 탈출한 여성비율은 15.5%이었고, 미취업상태로 탈출한 여성비율은 56.0%이었다. 정규직으로 탈출한 여성비정규직은 모두 5년 이내에 탈출하였는데, 정규직 탈출여성의 기간별 분포를 보면 2년 이내에 정규직으로 탈출한 여성의 77%, 4년 이내에 90% 이상이 탈출하였다. 미취업상태로 탈출한 여성의 59.6%는 2년 이내, 80.9%가 4년 이내에 미취업상태로 탈출하였다.

이에 비해 1970년 이전 출생 여성을 보면 비정규직으로 처음 취업한 여성 중에서 만 35세 이전에 정규직으로 탈출한 여성비율은 5.6%, 미취업상태로 탈출한 여성비율은 34.2%이었다. 미취업상태에서 정규직으로 탈출한 여성 중에서 4년 이내에 탈출한 여성비율은 48.3%, 9년 이내 탈출한 여성비율은 72.4%이었다. 미취업상태로 탈출한 여성의 탈출기간별 분포를 보면, 전체 미취업상태로 탈출한 여성의 55.3%가 4년 이내, 75.1%가 7년 이내에 탈출하였다.

즉, 젊은 세대의 여성일수록 학교를 졸업한 이후 처음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이후에 정규직이나 미취업상태로 탈출하는 여성비율이 높았다.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탈출하는 여성비율은 낮은 상

황에서 젊은 세대로 올수록 정규직으로 탈출하는 비율도 높고, 비정규직에서 미취업상태로 탈출하는 여성비율도 높았다. 또한 젊은 세대일수록 정규직으로 탈출하는 기간과 미취업상태로 탈출하는 기간이 훨씬 빨라졌다.

나. 비정규 취업상태의 탈출 결정요인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비정규직으로 처음 취업한 여성근로자들이 정규직과 미취업상태로의 탈출하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전에, 정규직과 미취업상태로의 탈출에 대한 해자드함수가 유사한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즉, 앞에서 언급한 식 (8)에서 모든 j에서 $\beta_j = \beta$ 인 지를먼저 검증하였다. 식 (8)을 로짓(logit) 모형으로 설정하여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비례적 해자드가설이 충족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Cox 모형으로 탈출모형을 설정하여, 정규직 및 미취업상태로의 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정하였다.

본 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는 <표 6>과 같다. 분석에서는 취업상태를 크게 3가지로 구분하였다. 즉,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적이고 소득 및 임금수준이 적정 수준인 상용고, 고용주, 자영업자 (편의상 본 분석에서는 '정규직'이라고 함), 고용이 불안정적이고 소득 및 임금수준이 낮은 임시 및 일용고, 무급가족종사자 ('비정규직'이라고 함), 실업 및 비경제활동상태 ('미취업상태'라고 함)로 나누었다.

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인 비정규직 취업지속기간은 최종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비정규직(통계적 의미에서 임시 및 일용고, 무급가족종사자)으로 처음 취업한 시점부터 비정규직을 탈출하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나타낸다. 설명변수는 먼저 엄밀한 의미의 비정규직인 임시 및 일용고와 무급가족종사자를 구분한 고용형태 더미를 포함시켰다. 그리고 대학의 전공, 고등학교의 계열, 비정규직 취업과 최종학교 학업의 병행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 최종학교 졸업 이후부터 처음 취업하기까지의 구직기간, 취업과 관련한 남녀평등 의식과 태도를 나타내는 변수, 세대를 구분하는 더미, 취업과 관련된

자격증 보유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 처음 취업한 일자리가 속하는 산업을 나타내는 더미, 그리고 처음 취업한 직종을 나타내는 더미를 포함시켰다.

<표 6> 비정규직 탈출함수 추정에 사용된 변수

변수명		정의 및 측정단위
<종속변수>		
비정규직 취업기간	p-nonstan	-학교 졸업후 처음 비정규상태로 취업한 이후, 정규직 혹은 미취업상태로 전환하기까지의 기간
<독립변수>		
고용형태더미	dstatus	-분석대상인 비정규직 유형에서 dstatus=0이면 임시,일용고 등 비정규직근로자, =1 이면 무급가족종사자를 나타냄.
대학전공 더미	dumaj1 dumaj2	-기준 전공계열은 사범 및 예체계열 -인문, 사회, 경상계열이면 dumaj1=1, 그렇지 않으면 =0. -공학, 이학, 의학, 수해양 계열이면 dumaj2=1, 그렇지 않으면 =0.
고교계열 더미	dhmaj	-기준계열은 실업계 -인문계이면 dhmaj=1, 그렇지 않으면 =0.
취업 중 재학을 나타내는 더미	dstudent	-기준은 취업과 최종학력에 해당하는 학업을 병행한 여성집단 -최종학교를 마친 이후에 취업하였으면 dstudent =1, 그렇지 않으면 =0.
대졸 더미	dedu	-기준학력은 고졸이하임. -대졸이상이면 dedu=1, 그렇지 않으면 =0.
졸업이후 구직기간	psearch	-최종학교를 졸업한 이후부터 처음 취업할 때까지의 기간
세대 더미	dcohort	-기준세대는 1970년 이전 출생 세대 -1970년 이후에 출생한 세대이면 dcohort=1, 그렇지 않으면 =0.
의식태도	att	-남녀평등적인 의식을 나타내는 변수. 값의 범위는 0~15이고, 값이 높을수록 취업과 관련해서 남녀평등적인 의식을 가짐. -결혼이후 계속 취업, 남성과 동일하게 성공하려고 노력, 맞벌이인 경우 자녀양육은 남녀의 책임에 관한 의식을 5점 측도로 조사한 결과를 합침.
자격증 더미 1	dlic1	-최종학교 졸업이후에서 학교 졸업 이후 처음 취업하기 전까지 취업과 관련된 자격증을 하나라도 취업하면 dlic1=1, 그렇지 않으면=0.
	dlic2	-최종학교 졸업이전에 취업과 관련된 자격증을 하나라도 취업하면 dlic2=1, 그렇지 않으면=0.
혼인 더미 1	dmar	-비정규 취업상태에서 다른 경제활동상태로 탈출하기 이전에 결혼하였으면, dmar=1, 그렇지 않으면=0.
출산 더미 1	dchild	-비정규 취업상태에서 다른 경제활동상태로 탈출하기 이전에 첫 자녀를 출산하였으면, dchild=1, 그렇지 않으면=0.
산업더미	dind1 dind2 dind3	-기준산업은 농어업 -제조업이면 dind1=1, 그렇지 않으면=0. -도소매업이면 dind2=1, 그렇지 않으면=0. -금융보험, 건설업, 기타 서비스업이면 dind3=1, 그렇지 않으면=0.
직종더미	docc1 docc2	-기준직종은 농어업관련직 및 생산관련직 -관리직,전문직,사무직이면 docc1=1, 그렇지 않으면=0. -판매서비스직이면 docc2=1, 그렇지 않으면=0.

먼저 비정규직 여성의 정규직 탈출 결정요인에 대한 추정결과는 <표 7>과 같다. 추정결과에 의하면 고용형태를 나타내는 더미,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지 않고 졸업이후 취업을 나타내는 더미, 졸업 이후 비정규직 일자리를 얻기까지의 구직기간을 나타내는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학 전공을 나타내는 변수 중에서 인문·사회·경상계열을 나타내는 더미, 대졸더미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먼저 고용형태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의 추정계수를 보면 임시·일고로 취업한 여성이 무급가족종사자보다 훨씬 정규직으로 탈출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급가족종사자는 임시 및 일고보다 정규직으로 탈출할 확률이 67.2%나 낮았다. 또한 학교를 졸업한 이후 상당히 오랜 기간을 구직한 이후에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여성집단은 정규직으로 탈출할 확률이 구직기간이 짧은 집단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구직기간이 상당히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여성집단의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기업이 정규직으로 제의할 가능성이 적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학업을 하면서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집단보다 최종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비정규직에 취업한 여성집단이 정규직 탈출확률이 훨씬 높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학업 중에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여성은 학교를 졸업이후에야 비로소 정규직으로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탈출할 기간이 그 만큼 길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비정규직 상태에서 출산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정규직으로 탈출할 확률이 높았다. 대학전공계열을 나타내는 더미변수의 추정계수에 의하면 동일하게 비정규직으로 취업하였더라도 인문·사회·경상계열 출신 여성대졸은 사범·예술·체육계열보다 정규직으로 탈출할 확률이 3배정도 높았다. 그리고 학력이 낮은 집단일수록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탈출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비정규직 여성의 정규직 탈출 결정요인 분석

	추정계수	표준오차	Chi-Square	Risk Ratio
dstatus	-1.1145**	0.5569	4.0044	0.328
dumaj1	1.4345*	0.7617	3.5464	4.198
dumaj2	1.2555	0.8505	2.1789	3.510
dhmaj	-0.2920	0.5830	0.2509	0.747
dstudent	1.1015**	0.5277	4.3571	3.009
dedu	-1.2374*	0.7428	2.7752	0.290
psearch	-0.1388**	0.0667	4.3234	0.870
att	0.0148	0.0812	0.0333	1.015
dlic1	0.1753	0.4746	0.1364	1.192
dlic2	0.3801	0.4810	0.6244	1.462
dmar	-0.0643	0.5685	0.0128	0.938
dchild	1.1207**	0.5687	3.8825	3.067
dind1	-0.3554	0.7586	0.2195	0.701
dind2	-0.1858	0.8629	0.0464	0.830
dind3	0.3273	0.8152	0.1613	1.387
docc1	0.6562	0.7374	0.7920	1.928
docc2	0.6226	0.6822	0.8328	1.864
-2 LOG L	512.537			

주: ***, **, *는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냄.

또한 최종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비정규직으로 처음 취업한 여성이 미취업상태로 탈출하는데 영향을 미친 변수를 보면, 정규직으로의 탈출과 마찬가지로 고용형태를 나타내는 더미, 졸업 이후 비정규직 일자리를 얻기까지의 구직기간을 나타내는 변수,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업종, 혼인상태를 나타내는 더미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의 추정계수를 보면 무급가족종사자는 임시 및 일용고보다 미취업상태로 탈출할 확률이 낮았다. 즉, 무급가족종사자로 처음 취업한 여성취업자는 그와 같은 종사상지위에 상당히 오래 동안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임시 및 일용직 여성은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상태로 탈출하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졸업한 이후에 비정규직 일자리에 취업하기까지의 구직기간을 나타내는 더미변수의 추정계수를 보면, 구직기간이 길수록 미취업상태로 탈출하는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추정결과는 졸업한 이후에 곧 바로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기간이 짧을수록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상태로 탈출할 확률도

높음을 나타낸다.

산업을 나타내는 더미변수 추정결과에 의하면 학교졸업 이후 최초로 비정규직으로 일한 일자리가 속한 업종이 제조업인 여성은 농어업부문에 취업여성보다 훨씬 탈출확률이 높았다. 이 외에도 도소매업과 '금융·보험, 건설업, 기타 서비스업'에 처음 취업한 여성들도 농어업부문에 취업한 여성들보다 훨씬 미취업상태로의 탈출확률이 높았다. 상대적으로 미취업상태로의 탈출확률이 높은 산업을 보면 도소매업에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여성이 미취업상태로 탈출할 확률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제조업, '금융·보험, 건설업, 기타 서비스업'이었다. 즉, '금융·보험, 건설업, 기타 서비스업'에 비정규직으로 처음 취업한 여성근로자는 제조업이나 도소매업보다 비정규직으로 탈출하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 외에도 비정규직에서 결혼한 여성은 미혼으로 남아 있는 여성보다 미취업상태로 탈출하는 확률이 훨씬 높았다. 즉, 비정규직 취업여성은 결혼과 함께 노동시장을 퇴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비정규직 여성의 미취업상태 탈출 결정요인 분석

	추정계수	표준오차	Chi-Square	Risk Ratio
dstatus	-0.8480***	0.2157	15.4584	0.428
dumaj1	0.0357	0.3737	0.0091	1.036
dumaj2	0.1271	0.4556	0.0779	1.136
dhmaj	0.1435	0.2102	0.4663	1.154
dstudent	-0.2059	0.3187	0.4175	0.814
dedu	-0.1780	0.3511	0.2571	0.837
psearch	-0.0875***	0.0254	11.7840	0.916
att	0.0190	0.0320	0.3522	1.019
dlic1	-0.3188	0.2587	1.5186	0.727
dlic2	0.2941	0.2223	1.7502	1.342
dmar	1.5612***	0.1828	72.8926	4.765
dchild	-0.4360*	0.1741	6.2662	0.647
dind1	1.1539***	0.2909	15.7248	3.171
dind2	1.2365***	0.3113	15.7718	3.444
dind3	1.1004***	0.3390	10.5357	3.006
docc1	0.1020	0.2861	0.1271	1.107
docc2	-0.0604	0.2416	0.0626	0.941
-2 LOG L	2736.495			

주: ***, **, *는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Ⅲ. 결론

우리나라 청년층 여성의 경우 미취업에서 취업상태로 이행하는데 있어 몇 가지 의미있는 요인들을 찾아보았다. 여성 청년층의 첫 일자리로의 취업이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경제환경이다. 경제에 큰 충격요인이 있었던 외환위기 직후의 취업이행 확률이 매우 낮아지고 회복기에 접어든 이후에도 청년층의 취업이행은 크게 개선되지 않아 청년층 집단의 과잉반응(overshooting) 경향은 여성 청년층 집단에도 예외가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고졸자의 경우 인문계 고교졸업자들이 미취업상태로 남아있을 확률이 타 계열 졸업자들에 비해 높아 여성 인문계졸업생의 취업이행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추후 실업계 졸업생들의 취업이행과의 비교연구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대졸자의 경우나 그들의 전공 등은 첫 일자리로의 취업이행에 별다른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어 대졸의 졸업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학교 재학 중 자격증 취득이나 여성으로서 가지는 취업에 대한 태도 등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지던 요인들보다는 오히려 개인의 전공만족도가 취업이행 확률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을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비정규상태로 취업된 여성 청년층집단의 탈출현황을 보면, 학교를 졸업하고 30세 이전에 처음 취업한 일자리의 종사상지위가 임시 및 일용고, 무급가족종사자인 여성의 약 50%는 분석대상으로 하는 기간동안 정규직이나 미취업상태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50%는 비정규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대졸여성은 고졸에 비해서 비정규 취업상태를 탈출하는 확률이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비경제활동상태보다는 정규직으로 탈출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그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기간별로는 정규직으로 탈출한 여성의 50%가 4년 이내에 탈출하였다. 또한 세대별로 보면 젊은 세대의 여성일수록 학교를 졸업한 이후 처음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이후 정규직이나 미취업상태로 탈출하는 여성비율이 높았다.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탈출하는 여성비율이 낮은 상황에서 젊은 세대로 올수록 정규직으로 탈출하는 비율도 높고, 비정규직에서 미취업상태로 탈

출하는 여성비율도 높았다. 또한 젊은 세대일수록 정규직으로 탈출하는 기간과 미취업상태로 탈출하는 기간도 훨씬 빨라졌다.

비정규직으로 처음 취업한 여성 청년층집단의 경우 임시·일고로 취업한 여성은 무급가족종사자로 취업한 여성보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미취업상태로의 탈출확률이 훨씬 높았다. 또한 졸업 이후 처음 취업하는데 소요된 구직기간이 길수록 정규직뿐만 아니라 미취업상태로의 탈출확률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정규직 탈출에는 대학의 전공계열, 비정규직 취업과 학업의 병행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미취업상태로의 탈출에는 처음 취업한 업종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에 탈출의 경우 인문·사회·경상계열 졸업자는 정규직 탈출확률이 다른 계열보다 정규직 탈출확률이 높았고, 비정규직 취업과 학업을 병행한 여성집단은 정규직으로 탈출확률이 높았다. 미취업상태로의 탈출의 경우에는 처음 제조업에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여성집단이 미취업상태로 탈출할 확률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도소매업, 금융·보험·건설업·기타 서비스업, 농어업 순이었다.

연구결과에 따른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청년층 집단의 최종학교 졸업 후 취업이행에 1-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은 급변하는 사회환경을 고려할 때 학교에서 습득한 지식의 감가상각이 빠르게 진행될 여지를 갖는다. 따라서 이 기간의 단축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교육의 투자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와 각급학교의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여성 고졸자 집단은 빈곤계층화 하기 쉬운 고위험 집단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고교졸업 후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집단을 위한 적극적인 취업지도가 요구된다. 특히 인문계 고교졸업생의 취업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실무능력을 학교가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여성 청년층 취업이행에 나타난 경제충격에의 과잉반응은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면 기업들의 신규채용인력 규모를 축소시키고 기존에 보유한 인력을 활용하거나 교육훈련이 불필요한 경력직을 채용할 유인이 커지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집단의 경력개발 기회상실로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출산 및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이 빈번한 여성의 경우 경력직 채용으로부터도 소외될

가능성이 크므로 경제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성 청년층 집단의 첫 일자리 진입을 경기변동의 충격으로부터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향후의 경력개발을 위한 기초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셋째, 여성 청년층 집단의 취업이행을 위하여 자격증 및 취업준비도 필요하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공의 만족도를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하여 재학 중 내실있는 교육으로 학생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적성을 지속적으로 계발할 수 있는 학교의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청년층 여성에게 제공되는 임시 및 일용고, 무급가족종사자로서의 일자리는 향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교가 아니라, 그러한 종사상의 지위에 빠질 함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여성 청년층집단의 경우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정규직으로 탈출할 수 있는 교육훈련프로그램, 취업알선기회 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가교가 될 수 있도록 정규직 채용 시 비정규직근로자에게 우선 기회를 제공하거나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 일정한 혜택을 주는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태홍, 김미경 (2002), 「제4차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한국여성개발원.

김태홍 (2001),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임금실태 분석 및 동일임금원칙 적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여성부

안주엽, 홍서연 (2002), 「청년층의 첫 일자리 진입과 재취업과정」, 200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발표문.

안주엽 (2002), 「경기변동과 청년층 실업률」, 매월노동동향, 한국노동연구원, 2002. 2.

이병희 (2002), 「청년 취업난 완화를 위한 학교-노동시장 이행 지원체계 구축방안」, 2002. 2.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정책토론회 발표문.

P. D. Allison(1995), 「Survival Analysis Using The SAS System」. SAS Institute Inc.

Cox, D. R. and Oakes, D.(1984), 「Analysis of Survival Data」, Chapman & Hall.

Kazuo Yamaguchi(1991), 「Event History Analysis」, Sage Publication.

Van den Berg and Van Ours (1999), 「Duration dependency and Heterogeneity in French Youth Unemployment Duration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2, 273-285

abstract

A Study of Work Transition Form of Female Youth.

Tae-Hong Kim*, Jongsoog Kim**[7)]

This study explores school to work transition of female youth. Particularly, the analyses focus on a transition to the first job from the graduation, and exits of irregular employees from their first occupational status. Data used for the analysis are "The 4th Survey on Women's Employment", collected by KWDI in 2001. The results show that it takes 1.54 years on average for transition. Significant factors that influence the probability of transition to the first job include economic situation and satisfaction level of major at college education. The general high school educated are less likely to move into the labor market. Only a half percent of irregular employees at their first jobs exits to regular employees or non-economically active status, and education levels and age cohorts have clear impacts on those exits. Majors in college education and holding irregular jobs before the graduation significantly affect the probability of being regular employees, while industry influences the exits to be non-economically active status.

keywords: women, youth, school to work transition, first job, irregular employee.

7) *Senior Research Fellow, **Research Fellow